

오늘의 날씨와 생활

3월 31일 화요일 음 3월 8일 (조금)

기상정보

흐리고 한때 비



제주도는 맑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. 아침 최저 기온은 10-11℃, 낮 최고 기온은 16-17℃의 분포를 보일 것이다.

Table with 4 columns: 오전, 강수 확률, 제주, 오후. Rows show percentages for Jeju, Seosan, Gosan, and Seogwi.

Table with 2 columns: 해돋이, 달뜨기. Rows show times for sunrise, sunset, moonrise, and moonset.

Table with 2 columns: 내일, 모레.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.

Table with 2 columns: 식중독지수, 감기가능지수. Rows show health-related indices.

월드뉴스

트럼프 “해리왕자 부부 경호비용 못 대”

해리 부부 “요청한 적 없다”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(현지시간) 영국 해리 왕자 부부가 최근 캐나다를 떠나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미국은 이들의 경호 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썰기를 밝혔다.



해리왕자 부부.

해리 왕자 부부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“개인 경호 비용이 준비됐다”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.

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, fax, and website details.

한라칼럼



이 남 호 제주대학교 화학·코스메틱스학과 교수

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현재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.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해 해당 국가 모두가 국가 재난상태에 준하는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.

천연약물 개발 위한 아열대천연물 연구소 필요성

과 인간의 싸움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. 미생물은 자체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숙주에 기생해 살아야 하는 생물체다.

문제이다. 변형균 대처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.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신약개발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.

중국의 여성 과학자 투유유는 201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. 제주를 국내에서 아열대 천연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.

열린마당

4·3희생자 추념식 대폭 축소 봉행



강 민 철 제주특별자치도 4·3지원과장

72주기를 맞이하는 올해 4·3희생자 추념식은 제주4·3의 핵심 가치인 ‘화해와 상생, 평화와 인권’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담아 치러질 예정이다.

그렇기에 도민 여러분과 유족들께 몇 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. 첫째, 도민과 유족께서는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동참 차원에서 평화공원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.

초당옥수수 출하를 준비하면서



이 창 봉 한경농협 경제상무

최근들어 제주에는 매년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인해 면적조정 및 시세폭락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은 힘들기만 하다.

이 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품질 경쟁 면에서 유통처리에 상당히 유리하다. 또 농가 입장에서 월동채소 및 마늘 등의 대체 작목으로 재배가 전환돼 어느 정도 농작물 균형재배에 역할을 할 수 있다.

한리일보 advertisement for '감골묘목' (seedlings) featuring '유라실생 4년생' and '한림종묘' with contact number 010-3690-2453.

Advertisement for '감골 신품종 분양' (seedling distribution) listing various varieties like '레드향(무독)', '천혜향(무독)', and '만감류' with contact number 010-2691-1883.

Advertisement for '모든품종 감골(묘)분양' (all varieties seedling distribution) listing '황금향', '레드향', '천혜향' and '서귀종묘' with contact number 064-733-7005.

Advertisement for '감골묘목' (seedlings) listing various varieties like '유라실생', '레드향', '천혜향' and '석파농산' with contact number 010-2699-2355.